건강 칼럼

따사로운 봄날, 불청객 등장! 꽃가루 알레르기

최 영 득
건협 전북지부 건강증진의원장

추위가 서서히 풀리면서 외출이 잦은 3월이 오면 어김없이 봄의 불청객이 찾아온다.

꽃가루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비염이나 기관지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

봄철 알레르기의 주범인 꽃가루 알레르기 대응 방법을 알아본다.

▲꽃가루의 종류

대기 중에는 여러 식물에서 생산되는 많은 꽃가루가 존재한다. 이 모든 꽃가루가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각 식물의 수정 생리에 따라 인체의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데, 이러한 식물은 수정방법에 따라 크게 풍매화와 충매화로 나눌 수 있다.

충매화는 향기나 아름다운 꽃으로 곤충을 유혹하여 꽃가루를 전파하므로, 화분의 생산량이 적고, 크고 무거우며, 공기 중에 잘 부유하지 않아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고, 정원사나 원예가 등 특수한 경우에만 유발할 수 있다.

반면, 풍매화는 바람에 의하여 꽃가루가 전파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고,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공기 중에 잘 날아다닐 수 있어 알레르기와 연관이 많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 꽃가루를 접하면 코나 입을 통해 점막에 붙어 알레르기비염이나 결막염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꽃가루가 침이나 가래 등을 통해 분해되면 모세 기관지나 폐에 도달하게 되어 천식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의 크기는 대부분 직경이 20~60㎛인데, 세기관지나 폐포의 직경은 3~5㎛, 도달될 수 있는 입자 크기는 5㎛ 미만으로, 꽃가루가 기도 점액에 섞여 10분 내로 위장 기관으로 흡수된다.

이 중 일부 항원(알레르기)은 위장으로 가기 전 점액에 용해돼 기도 점막에 흡착되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꽃가루의 분포

꽃가루는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영하의 날씨에는 날아다니지 않고, 영상 10도 이상에서 활발하게 날아다닌다.

봄과 가을이 연 2회 절정기로, 그 이후에는 현격히 감소한다.

종류별로는 2월 말부터 5월까지 수목류가 주를 이루며, 8~10월에는 돼지풀, 쑥 그리고 환삼덩굴 꽃가루가 주를 이룬다.

2월 말부터 가장 많이 날아다니는 수목류 꽃가루는 노간주나무가 먼저 나타나고 뒤를 이어 자작나무, 오리나무가 나타나게 되며, 노간주나무나 측백나무는 남부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꽃가루의 제거와 회피

꽃가루는 계절성 항원이라 특정 계절에만 날아다니지만 이를 피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나무나 잡초 등 꽃가루가 발생하는 근원지를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항상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도 꽃가루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옷에 묻은 꽃가루를 털어낸다.

꽃가루 유행시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창문을 닫는 방법 등으로 원인 항원에서의 노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옷이나 창문을 통하여 꽃가루가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집에 들어와서도 계속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유행시기에는 실내에서도 꽃가루가 집안 먼지의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실내에서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등을 이용하여 꽃가루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꽃가루를 각 지역별로 채집, 분석해 꽃가루 종류와 분포를 살펴본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꽃가루 예보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 설

저출산 문제 여전히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가 위해 나서야 한다.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0년간 출생통계를 조사한 것이 저번에 보도됐는데 그 내용이 답답하다.

출생률 결과를 놓고 볼 때 나아진 것이 전무하다. 출생률이 가장 저조했다는 1995년도와 비교해도 출생률이 떨어졌으니 말이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도민 보기에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는 건지 묻고 싶다.

전북도는 지난 날 거듭해서 발표했던 말들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한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도 했지만 여태 진전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전북도가 저출산 문제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출산 문제가 지역의 오랜 숙제였음에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대책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다. 한 마디로 말해 전북도의 저출산 해결책이 이래서는 곤란하다.

관계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후로 감감 무소식이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전북의 앞날이 어둡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사실이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이미 2016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야 맞는데 우리 지역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출산 문제가 이쪽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시도들도 5개년 출산 정책안이며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보통으로 여겨선 안 된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능동적인 모색이 필요한 오늘이다.

아이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전북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2백만 도민을 운운하고 있지만 팩트가 아니다. 거주 인구 184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출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고령화 고착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계속 늘고 있는데 신생아 울음소리는 어쩌다 드물게 듣고 있으니 말이다.

전북형 일자리로 인구 감소 막아야 한다

전북도는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다. 전북형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나보다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암담하다.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 꼴찌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청년실업률이 저조한 것은 고민해 마땅한 일이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슴이 아플 지경이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청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행보가 특별해야겠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전북도의 움직임이 어째 활발하지 않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둔해 보인다.

전북도는 전북형 일자리 창출로 인구 감소를 막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수차례 언급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겠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 괜한 것이 아니다.

군산을 비롯해 전주와 익산 등 여러 곳에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실업자 증가 때문에 도민들은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은 적당히 성과를 내는 정도여서는 안된다.

전북도가 말한 그대로 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 안정은 전북도가 발 벗고 나서주어 마땅하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당할 때마다 참담함을 느껴야 한다.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뭔가 획기적인 플랜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독자제언

불법 촬영은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

최근 연예인이 개입된 범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단, 연예인 관련 사건 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 장소 역시 여성탈의실 , 공중화장실, 모텔 등 예측이 불가능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불법 영상과 사진은 곧바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불법촬영의 증가는 스마트폰과 초소형카메라, 위장형카메라의 발전과 보급, 판매와 관련되고 있으며 인터넷, sns, p2p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점과 전파, 공유된 자료는 영구 삭제가 불가능한 점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6,500건으로 하루 평균 6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시기,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일 것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1항 위반으로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현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창경찰은 위와 같은 불법촬영의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 우려 장소 점검 활동 및 예방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촬영의 근절을 위해 주변을 살피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범죄요인을 제거한다.

불법촬영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을 통해 근절되기를 바래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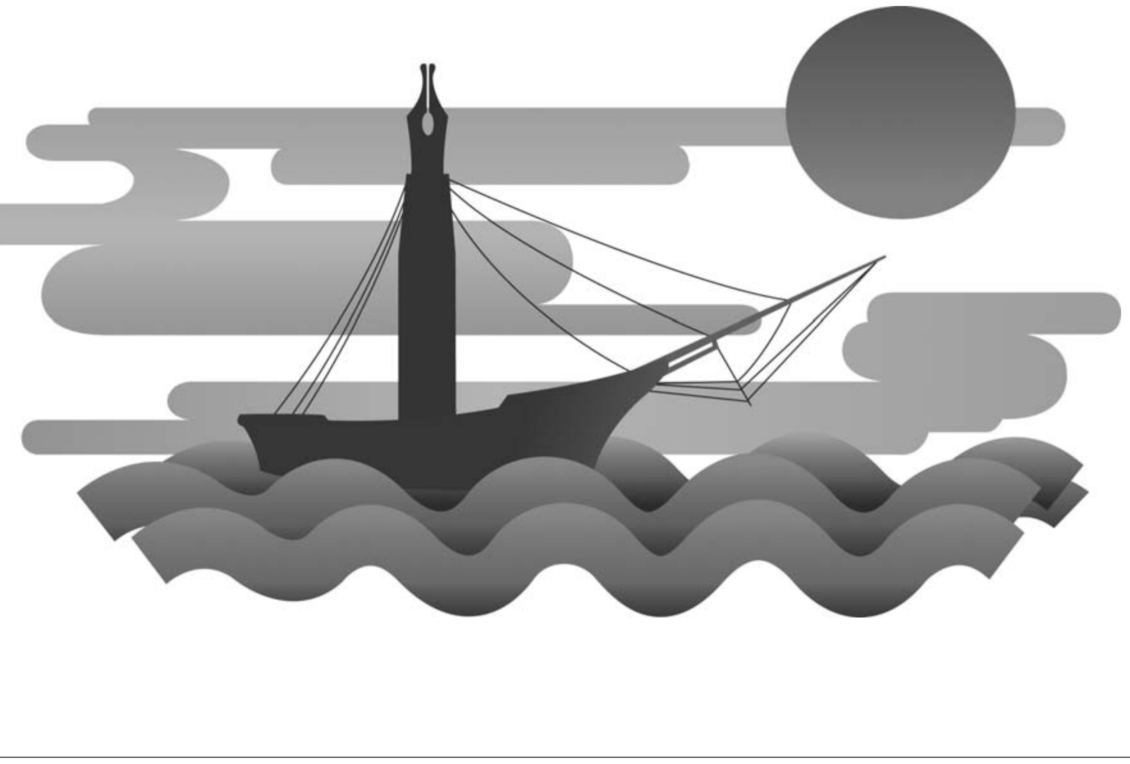
서호연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소시지 달리기 대회 우승하는 '과이도' 소시지

21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아메리칸 패밀리필드에서 LA 다저스와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시범경기 휴식 시간에 밀워키 브루어스 소시지 달리기 대회가 열려 이탈리아 소시지 '과이도'가 선두로 골인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